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29-42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29

KJHD

중학생의 공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영향력 검증*

Identifying the Change Trajectories of Empathy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Examining the Effect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1차원고접수: 2026.03.05. 수정원고접수: 2026.08.24. 최종게재결정: 2026.09.19.

김균희[1] · 홍예지[2]
[1]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위원
[2]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Kim, Gyunhee[1]
Hong, Yea-Ji[2]
[1]Good Neighbors Research Center for Children's Rights
[2]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청소년의 공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의 잠재집단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4, 15, 16차 자료에 조사된 중학생 1,194명을 선정하였으며, SPSS 29.0과 Mplus 8.7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의 종단적 변화에는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하였으며, '고수준 완만감소형', '중간수준 유지형' 및 '중간수준 급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 및 '중간수준 급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공감 변화 양상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및 또래 애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학생, 공감,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성장혼합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changes in empathy of adolescents, examining their relation to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this end, 1,194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in the data from the 14th to 16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a growth mixture model was conducted using SPSS 29.0 and Mplus 8.7.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near model was suitable for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empathy and the change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high-level slowly decreasing, mid-level steady, and mid-level rapidly decreasing. Second, adolescen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and greater trust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mid-level steady group than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group. In contras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group than the mid-level rapidly decreasing group. Furthermore, adolescents experiencing greater peer alienatio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or the mid-level rapid decreasing group than the mid-level steady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upport tailo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trajectorie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understanding their empathy development.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growth mixture model*

* 본 연구는 제 1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홍예지(Hong, Yea-Ji)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E-mail. yjhong@in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Eisenberg & Fabes, 1990; Hoffman, 2000),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정서적・행동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복합적, 통합적 능력이다(홍예영, 김유숙, 2015). 이러한 공감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핵심 요소로(McDonald & Messinger, 2011),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애착 형성, 이타행동,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 사회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옥재진, 정윤경, 2024; Hoffman, 2000). 청소년기는 공감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Allemand et al., 2015; Van Lissa et al., 2015),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고, 자기효능감, 정서적 회복탄력성(Wang et al., 2024)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Supervía et al., 2023). 이에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은 점진적으로 정교화되고 발달하는데,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면 타인의 지속적인 삶의 배경이나 사회적 집단의 고통까지 이해하는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Hoffman, 2008). Decety(2010)는 공감이 정서적 각성(affective arousal), 정서적 이해(emotion understanding), 정서적 조절(emotion regul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가 서로 다른 발달 궤적을 따른다고 설명한다. 정서적 각성은 타인의 정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출생 초기부터 나타나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Decety, 2010). 반면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정서적 이해는 생후 2-3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기・청소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교화된다(Decety, 2010). 자신의 정서 반응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적 조절 역시 실행기능의 성숙과 함께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서서히 발달한다(Decety, 2010).

공감의 발달은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는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과도 관련된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멘탈라이징 능력은 청소년기에도 계속 발달한다. 실제로 청소년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오류를 보였으며, 이는 타인의 시점을 취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발달 중임을 보여준다(Blakemore, 2012). 성숙한 공감은 앞서 살펴본 정서적 각성, 정서적 이해, 정서적 조절이 서로 긴밀히 통합될 때 가능하다(Decety, 2010). 따라서 이러한 공감의 구성요소가 계속 발달하고 통합되는 중학교 시기의 공감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공감 변화를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청소년기 공감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변하지 않음을 밝혔다. 예컨대, Van der Graaff 등(2014)에 따르면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은 여자 청소년은 초기부터 꾸준히 증가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15세 이후에야 증가하였고,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여자 청소년은 청소년기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비해 남자 청소년은 초기・중기에 감소했다가 후기에 반등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 궤적을 보였다. 또한, Allemand 등(2015)은 독일 청소년의 12-16세 공감 변화를 추적한 결과, 청소년기의 공감이 평균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의 초기 수준은 성인기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하였고, 청소년기 동안의 공감 변화는 성인기의 공감과 사회적 통합감을 예측하였다(Allemand et al., 2015). 특히 성인기의 사회적 통합감은 공감의 초기 수준이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 공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mand et al., 2015). 이는 청소년기 공감의 초기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공감 감소가 이후 사회적 적응의 위험요인이 되는 반면 공감 증가는 성인기 사회적 기능을 위한 개인적 자원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변수중심적 접근을 통한 분석은 청소년기

공감의 평균적 발달 양상과 그 변화가 지니는 함의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변수중심적 접근은 평균 궤적 이면에 가려 개인들의 변화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의 분석 방법은 개인들의 변화궤적의 유사성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구별되는 발달 경로를 지닌 집단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적절하다. Van Lissa 등(2015)은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 방법의 하나인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하여 13-18세 네덜란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평균수준형(60.6%)'은 공감적 관심은 낮으나 안정적이고 조망수용은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 '고수준형(22.5%)'은 두 차원 모두 높고 조망수용이 초・중기에 크게 증가하는 집단, '저수준형(16.9%)'은 두 차원 모두 가장 낮고 초・중반(13 ~ 16세)에 감소했다가 후반에 다소 회복하여, 다른 집단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다(Van Lissa et al., 2015). 한편 Farrell과 Vaillancourt(2021)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사용하여 공감적 관심과 조망수용 두 차원의 궤적을 각각 도출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심은 중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망수용은 중간 수준에서 증가하는 집단(31.9%)이 가장 많았으며, 두 차원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집단(17.2%), 두 차원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집단(7.4%), 한 차원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수 집단(공감적 관심만 높은 집단 1.6%, 조망수용만 높은 집단 2.8%)이 확인되었다(Farrell & Vaillancourt, 2021). 이처럼 사람중심적 접근은 공감이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전체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 경로와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위와 같은 근거의 상당수는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문화적 맥락에 따라 공감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독립성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을 지니지만(류정현, 2007),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 중학생이 공감을 형성하는 조건은 오히려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한편, 입시 경쟁과 성취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휴식과 여가는 부족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0%에 이르고(통계청, 2025.3.13.), 평균 수면 시간은 7.2시간으로 권장 수준(8 ~ 10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약 41%가 학습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민상 등, 2025). 이러한 환경은 학업스트레스와 공부압력을 높여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김도영, 2013; 문경숙, 2006, 2008),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관점을 추론할 기회 역시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 공감이 발달・적응상 중요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희경(2007)은 서울 지역 중학생 587명에서 희망과 공감 수준에 따라 네 하위집단을 도출하여, 두 자원이 모두 높은 집단이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고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오은주와 남재걸(2017)은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을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옥재진과 정윤경(2024)은 공감이 기질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밝혔다. 또한, 이상미(2024)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감을 낮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학교적응・심리적 안녕감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개인차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국내 연구는 대부분 특정 시점의 횡단적 관계를 다루었을 뿐, 공감이 어떤 궤적으로 변화・분화하는지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생 공감의 변화 유형을 종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학생 시기는 정서적 자원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때이므로(김은경, 김순규, 2015),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에 따른 청소년의 공감 변화 유형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에 따르면, 영아가 주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정서적 유대감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서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Bowlby, 1982). 이 모델은 전 생애에 걸쳐 타인의 의도와 정서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인지적·정서적 틀로 작용하며(Bretherton & Munholland, 2008), 청소년의 공감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Allen과 Land(1999)가 명명한 것처럼 '애착의 재협상기(renegotiating)'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와 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및 인지적 독립을 자율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증가하는 시기로(김은경, 김순규, 2015), 부모에게 의존하던 정서적 자원이 또래 관계로 확장되는 전환기적 특징을 보인다. 중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면서,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하다(김균희, 홍예지, 2025; 정장현, 조한익, 2019). 이 시기를 시작으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또래 애착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은경, 김순규, 2015). 즉, 중학생 시기는 공감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애착의 주요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전환기이며, 애착과 공감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주요 애착 대상인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수준에 따라 공감 발달 유형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Boele et al., 2019; Xu et al., 2022)는 부모 및 또래 애착 수준은 공감과 관련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상이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Xu 등(2022)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과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50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안전 애착은 공감과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회피 애착은 공감과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또래 애착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문화권에 따라 공감과 애착 간의 상관이 차이가 있어서 동양권 문화권에서 공감과 애착 간 상관이 서양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Xu et al., 2022). Boele 등(2019)은 메타 분석에서 청소년의 공감 능력과 부모 및 또래 관계의 질 사이에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공감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 또래 관계 질은 공감과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또래와의 질이 공감과 더 관련되었다. 또한, 부모 및 또래의 질과 공감은 상호강화적 관계로, 질 높은 관계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은 다시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ele et al., 2019). 한편, 전유라와 남숙경(2024)은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고,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낮아 애착 유형에 따라 공감과의 관련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유경과 정다영(2024)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이 각각 청소년의 공감과 관련이 있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애착이 청소년의 공감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공감은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으로 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확장된 또래 관계 속에서 재형성되고 정교화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공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에 따라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공감을 단일한 평균적 발달 경로로 보는 변인 중심 접근을 넘어, 애착 수준이 어떤 청소년을 공감이 유지·상승하는 궤적으로, 또 어떤 청소년을 감소하는 궤적으로 이끄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학문적으로는 애착이라는 관계적 자원이 공감 발달의 개인차(이질적 궤적)를 형성하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공감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고, 실천적으로는 부모·또래라는 애착 대상과 의사소통·신뢰·소외감 같은 하위 차원 중 어디에 개입해야 공감의 부정적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발달 유형별 맞춤 지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주요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전환기에 놓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잠재집단의 차이를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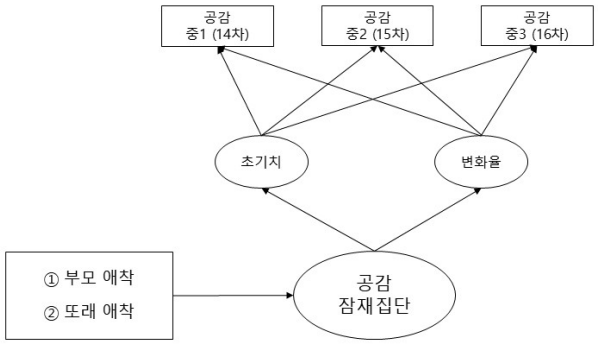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공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감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4, 15, 16차년도 자료 즉,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예측 요인인 부모 및 또래 애착은 14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중에서 공감의 3개의 측정시점 및 예측 요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총 1,1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14차년도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만 13세 4개월이며, 성별은 남학생 613명(51.3%), 여학생 581명(48.7%)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과 교육수준은 어머니 44.11세(*SD* = 3.62)이고, 4년제 대학교 졸업 38.8%, 전문대학 졸업 28.5%, 고졸 이하 25.8%, 대학원 졸업 6.4%순이고, 아버지 46.63세(*SD* = 3.92)이며, 4년제 대학교 졸업 40.0%, 고졸 이하 26.3%, 전문대학 졸업 21.0%, 대학원 졸업 12.1% 순으로 많았다. 취업 또는 학업 중인 아버지가 86.7%, 어머니가 62.1%이었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중앙값이 520만원으로, 401만원 이상 ~ 700만원 이하 52.7%, 400만원 이하 26.1%, 701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가 16.6%, 1001만원 이상이 4.6%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공감

공감은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공감의 원 척도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신뢰도 문제를 보이는 2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등 표현적 공감 7문항,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등 인지적 공감 4문항,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등 정서적 공감 4문항,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6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14차년도 .93, 15차년도 .93, 16차년도 .92다.

2) 부모애착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척도를 이정림 등(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척도는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등 의사소통 6문항,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등 신뢰감 3문항,

“아버지/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등 소외감 3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신뢰감의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며, 부모로부터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90, 신뢰감 .69, 소외감 .53이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5이며,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90, 신뢰감 .67, 소외감 .52이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2이다.

3)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척도를 일부 추출하여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척도는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등 의사소통 3문항,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등 신뢰감 3문항,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등 소외감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래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며, 또래로부터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70, 신뢰감 .76, 소외감 .67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7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9.0과 Mplus 8.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절차 및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특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감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고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적 변화 양상을 가진 잠재집단별로 각 집단의 다른 성장 경로에 대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집단별 절편과 기울기의 분산은 상이하도록 이질적 분산을 허용하였다. 세 개의 측정 시점에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여 공감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함수 형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고, 최종모형은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의 통계적 적합도를 해석의 가능성과 함께 고려하였다. 정보준거지수로 AIC, BIC, sBIC를 확인하였고, 적은 값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로 Entropy 값은 0.8 이상일 때 양호하다고 본다(Muthén, 2004). 또한 경쟁모형과의 상대적인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LMR과 BLRT을 살펴보았고,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한다. p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할 경우에는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뿐만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감 잠재집단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아동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공감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이후 공감 잠재집단과 부모 및 또래 애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예측 요인이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집단 분류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의 지표를 통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잠재집단에 각 개인을 할당하고, 분류의 오류 가능성을 계산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정된 분류의 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잠재집단과 예측 요인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automatic) 추정 방법(Bakk & Vermunt, 2016)인 R3STEP 방법을 통해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공감의 14차 평균 4.24점(*SD* = .80), 15차 평균 4.21점(*SD* = .83), 16차 평균 4.06점(*SD* = .78)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다. 아버지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신뢰감 3.81점(*SD* = .78), 의사소통 3.45점(*SD* = .84), 소외감 3.26점(*SD* = .72) 순이었고,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신뢰감 3.98점(*SD* = .74), 의사소통 3.84점(*SD* = .75), 소외감 3.37점(*SD* = .73) 순이었으며,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신뢰감 3.19점(*SD* = .58), 의사소통 3.15점(*SD* = .52), 소외감 1.88점(*SD* = .64) 순이었다. 다음으로 공감은 아버지 및 어머니 애착 중 의사소통 및 신뢰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15 ~ .35, p < .001), 소외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즉,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18 ~ .42, p < .05, p < .001).

2. 공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1) 잠재집단의 결정

공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개 시점의 무변화모형(χ^2 = 13.21, *df* = 4, CFI = .99, TLI = .98, RMSEA = .07, SRMR = .07)과 선형변화모형(χ^2 = 1.83, *df* = 1, CFI = .99, TLI = .99, RMSEA = .03, SRMR = .01)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이상, RMSEA와 SRMR은 .08이하가 양호하다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근거하였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모형보다 더 좋아 선형변화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형변화모형에서 공감의 초깃값은 평균 4.00(p < .001), 분산 0.65(p < .001)이고, 변화율은 평균 -0.06(p < .001), 분산 0.03(p < .001)으로 공감에 개인차가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공감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정보지수(AIC, BIC, sBIC), Entropy, LMR, BLRT 지표는 표 2와 같다. AIC, BIC, sBIC 값은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Entropy 값은 집단 수와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1,19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56***	-										
3	.52***	.59***	-									
4	.26***	.21***	.15***	-								
5	.27***	.21***	.18***	.70***	-							
6	-.02	.02	.01	.13***	.30***	-						
7	.35***	.25***	.22***	.54***	.44***	.08**	-					
8	.35***	.26***	.23***	.40***	.58***	.19***	.70***	-				
9	.03	.06	.06	.09**	.24***	.53***	.16***	.28***	-			
10	.42***	.28***	.25***	.30***	.27***	.07*	.32***	.26***	.06*	-		
11	.41***	.27***	.26***	.29***	.29***	.08**	.31***	.27***	.10***	.74***	-	
12	-.18***	-.08*	-.14***	-.05	-.18***	-.15***	-.11***	-.22***	-.21***	-.22***	-.30***	-
평균	4.24	4.21	4.06	3.45	3.81	3.26	3.84	3.98	3.37	3.15	3.19	1.88
표준편차	.80	.83	.78	.84	.78	.72	.75	.74	.73	.52	.58	.64
왜도	-.51	-.45	-.39	-.39	-.45	.08	-.54	-.49	-.11	.02	-.43	.70
첨도	1.23	.83	1.07	.35	.00	.35	.64	-.09	.37	-.02	.39	.51

주. 1 = 공감 14차; 2 = 공감 15차; 3 = 공감 16차; 4 = 부 애착_의사소통; 5 = 부 애착_신뢰감; 6 = 부 애착_소외감; 7 = 모 애착_의사소통; 8 = 모 애착_신뢰감; 9 = 모 애착_소외감; 10 = 또래 애착_의사소통; 11 = 또래 애착_신뢰감; 12 = 또래 애착_소외감.
*p < .05. **p < .01. ***p < .001.

표 2. 잠재집단 분류 기준 (N = 1,194)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7490.57	7461.83	7450.71
	BIC	7546.51	7533.03	7527.16
	sBIC	7511.56	7488.56	7483.16
모형비교검증	LMR	$p < .001$	$p < .05$	$p > .05$
	BLRT	$p < .001$	$p < .001$	$p > .05$
분류의 질	Entropy	.95	.96	.92
n (%)	1	1170(97.67)	1150(94.62)	19(2.02)
	2	24(2.33)	28(3.77)	1147(93.99)
	3		16(1.62)	19(2.87)
	4			9(1.12)

관계없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모형비교검증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 LMR과 BLRT 검정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뿐만 아니라 집단 간 이질성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Nylund-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잠재집단 수가 3개인 모형이 집단 간 이질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공감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잠재집단 수가 3개와 4개인 모형을 비교했을 때 3번째와 4번째 잠재집단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 해석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감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은 3개일 때 각 집단 간 구분이 명확하였고, 각 집단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Jung과 Wickrama(2008)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3개의 잠재집단을 기초로 하였다.

2)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공감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중학교 1학년 공감의 초기치가 4.19점으로 가장 높지만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고수준 완만감소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94.6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공감의 초기치가 2.89점으로 중간수준이었고, 이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재집단은 공감의 초기치가 3.01점으로 중간수준이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수준 급감소형'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1.62%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공감의 변화 양상은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예측요인에 대한 잠재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준거집단을 설정하였고,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짓값을 산출하였다.

표 3. 잠재집단별 명칭, n(%) 및 함수 (N = 1,194)

잠재집단		n(%)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고수준 완만감소형	1150(94.62%)	절편	4.19	.03	.000
			일차함수	-0.06	.01	.000
2	중간수준 유지형	28(3.77%)	절편	2.89	.36	.000
			일차함수	0.16	.09	.069
3	중간수준 급감소형	16(1.62%)	절편	3.01	.45	.001
			일차함수	-0.79	.1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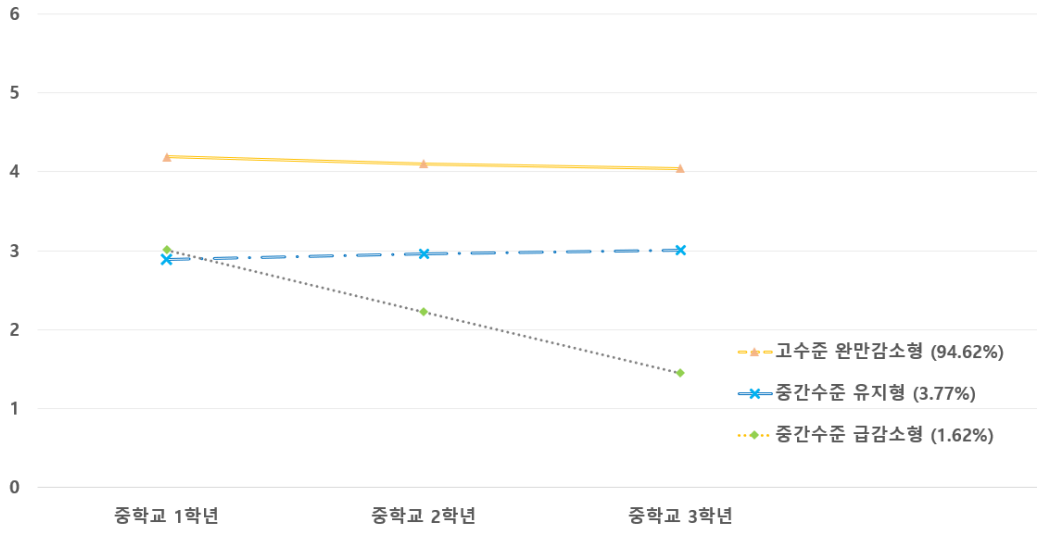


그림 2. 공감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표 4.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 (N = 1,194)

변인	고수준 완만감소형 vs. 중간수준 유지형		고수준 완만감소형 vs. 중간수준 급감소형		중간수준 유지형 vs. 중간수준 급감소형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부 애착_의사소통	1.52(0.64)*	4.58	0.49(0.95)	1.63	-1.03(1.12)	0.36
부 애착_신뢰감	1.42(0.63)*	4.14	-0.05(0.94)	0.95	-1.47(1.14)	0.23
부 애착_소외감	-0.32(0.71)	0.73	-0.40(0.31)	0.67	-0.08(0.77)	0.92
모 애착_의사소통	0.11(0.67)	1.11	-1.83(0.92)*	0.16	-1.94(1.09)	0.14
모 애착_신뢰감	0.07(0.93)	1.08	1.46(0.84)	4.31	1.39(1.21)	4.01
모 애착_소외감	0.35(0.69)	1.42	0.14(0.52)	1.15	-0.21(0.82)	0.81
또래 애착_의사소통	-0.40(0.50)	0.67	0.43(0.69)	1.54	0.84(0.83)	2.31
또래 애착_신뢰감	1.08(0.67)	2.95	-0.53(0.61)	0.59	-1.61(0.89)	0.20
또래 애착_소외감	-1.92(0.84)*	0.15	0.04(0.29)	1.04	1.95(0.86)*	7.06

*p < .05.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전, 아동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공감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애착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공감 '고수준 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 유지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고, 어머니의 애착 중 의사소통은 '고수준 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 급감소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또래와의 애착에서는 소외감만이 '고수준 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 유지형' 및 '중간수준 유지형'과 '중간수준 급감소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중간수준 급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년 동안의 공감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타난 청소년 공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은 '고수준 완만감소형'(94.62%), '중간수준 유지형'(3.77%), '중간수준 급감소형'(1.62%)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대다수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비교적 높은 공감 수준(4.19점)을 보였으며, 이후 3학년까지 공감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하였다. 반면 소수의 청소년은 중간 수준의 공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감소하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공감 변화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변화 경로를 보이는 청소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한 '고수준 완만감소형'에서 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기 공감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Allemand 등의 연구(2015)와 차이가 있다. Van Lissa 등의 연구(2015)에서도 '평균수준형'은 공감적 관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망수용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고수준형'은 조망수용이 초기・중기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공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다수의 중학생에게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감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인된 공감의 변화 양상이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감의 발달을 이해할 때 청소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 부담과 학업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적 적응과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김도영, 2013; 문경숙, 2006, 2008; 유민상 등, 2025),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초기 청소년의 공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미, 202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및 생활 환경이 공감의 변화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공감 감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 집단은 변화의 방향뿐 아니라 공감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은 3년 내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중간수준 유지형'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중간수준 급감소형'은 초기에는 '중간수준 유지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공감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공감 변화 유형을 이해할 때에는 현재의 공감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공감 초기 수준뿐 아니라 이후의 변화 역시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Allemand 등(2015)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특히 '중간수준 급감소형'과 같이 공감이 빠르게 감소하는 청소년은 이후의 변화와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조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증진을 위한 지원 역시 청소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감은 사회성, 문제 행동, 삶의 질 등과 밀접히 관련되므로(Supervía et al., 2023; Wang et al., 2024), 공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현재의 공감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빠르게 감소하는 소수의 청소년에게는 변화 양상과 어려움을 고려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감을 하나의 평균적인 수준이나 변화로 이해하기보다 공감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이 이후의 또래관계, 학교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의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라 공감 변화 유형이 달랐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모 애착이 공감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박유경, 정다영, 2024; Boele et al., 2019; Xu et al., 2022)를 지지하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 공감 발달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높을수록 초기 공감 수준이 가장 높은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정 애착이 일반적으로 높은 공감 수준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Xu et al., 2022)를 고려하면 다소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은 높은 공감 수준에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반면, '중간수준 유지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수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은 공감의 높은 초기 수준보다는 이후 공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기 공감의 초기 수준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고한 Allemand 등(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주양육자와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중 매일 2시간 이상 부모와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14.2%, 어머니 33.5%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이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참여형 학교・지역사회 활동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고민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묻고 경청하며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버지와 자녀가 일상에서 의사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애착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청소년의 공감 변화 유형을 구분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실제로 박선하, 김지현과 김정민(2014)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공감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공감적 관심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가 일상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과 소외감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 애착의 각 하위요인이 공감 변화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인 역할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래 관계에서는 소외만이 공감 변화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 또는 '중간수준 급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이 초기 공감 수준과 관계없이 중학교 시기 동안 공감의 감소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래애착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데(김은경, 김순규, 2015), 특히 중학생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사회적 수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래 거절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관계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Masten et al., 2010). 또한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oele et al., 2019), 공감 수준이 높은 친구와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이후 자신의 공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또래관계가 공감 발달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iklikowska et al., 2022).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중학생의 또래 관계에서 수용되고 소속되어 있

다고 느끼는 경험이 공감을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조망수용과 정서 인식을 다루는 공감 증진 활동과 함께 또래 멘토링, 협동학습, 학급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높이고,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주로 횡단적으로 다루어져 온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공감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 세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공감 변화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다수의 중학생이 비교적 높은 공감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 수준을 유지하거나 빠르게 감소하는 소수 집단이 함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공감의 변화 양상과 차이를 보여주며, 청소년기 공감 발달을 이해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부모 및 또래 애착을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공감 변화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또래 소외감이 공감 변화 유형을 구분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또래 애착의 각 하위요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공감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또래관계의 구체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공감 변화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감 수준이 높은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도 완만한 감소가 나타난 만큼 학교에서는 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공감 변화 유형과 관련된 결과를 고려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에서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묻고 경청하는 의사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또래 소외감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에서는 또래활동, 협동학습, 학급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감 수준이 낮거나 빠르게 감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을 함께 살펴보는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중 소외감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 값이 모두 양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부모 및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애착의 원척도 그대로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고유 속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신뢰감뿐만 아니라 소외감에서도 하위요인별 모든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지만 추후 분석에서 소외감 척도를 활용할 시 문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 분류에 있어 세 개의 잠재집단이 가장 적절하였지만 각 집단에 속하는 중학생 수에 불균형이 있었다. 즉, 대부분의 중학생이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하였고, 이에 따라 사례 수가 적은 소수 집단에 대한 3단계 보조변인 투입 결과는 통계적 검정력이 낮고 추정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거나 반복연구를 통해 통계적 안정성과 재현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인지적 및 사회적 특성, 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보호 및 위험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을 달리할 변인과의 여러 측면을 아울러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균희, 홍예지 (2025). 청소년의 우울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3**(2), 79-91. https://doi.org/10.7466/JFBL.2025.43.2.79

김도영 (2013). 공부압력과 공격성 간의 경로모형 검증: 청소년활동,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4), 225-243.

김은경, 김순규 (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 **학교사회복지, 32**, 357-384.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문경숙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의 역할. **아동학회지, 29**(5), 285-299.

박선하, 김지현, 김정민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4), 225-238.

박유경, 정다영 (202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공감의 관계: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5**(4), 333-347. https://doi.org/10.5723/kjcs.2024.45.4.333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오은주, 남재걸 (2017).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2), 209-220.

옥재진, 정윤경 (2024). 초기 청소년기 기질과 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7**(4), 47-71. https://doi.org/10.35574/KJDP.2024.12.37.4.47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2025).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미 (2024).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4**(2), 218-238.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조혜주, 임종한, Gustavo Carlo (2017).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희경 (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전유라, 남숙경 (2024). 고등학생의 불안정 애착 유형과 분노표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1), 27-51. https://doi.org/10.16983/kjsp.2024.21.1.27

정장현, 조한익 (2019). 청소년들의 또래애착과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인간발달연구, 26**(3), 89-115. https://doi.org/10.15284/kjhd.2019.26.3.89

통계청. (2025. 3. 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홍예영, 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Allemand, M., Steiger, A. E., & Fend, H. A. (2015). Empathy development in adolescence predicts social competencies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83*(2), 229-241. https://doi.org/10.1111/jopy.12098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New York, NY: Guilford.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Bakk, Z., & Vermunt, J. K. (2016).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1), 20-3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55104

Blakemore, S. J. (2012). Development of the social brain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05*(3), 111-116. https://doi.org/10.1258/jrsm.2011.110221

Boele, S., Van der Graaff, J., De Wied, M., Van der Valk, I. E., Crocetti, E., & Branje, S. (2019). Linking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o empathy in adolescence: A multilevel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6), 1033-1055. https://doi.org/10.1007/s10964-019-00993-5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2008).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Elaborating a central construct in attachment theor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02-127). New York: Guilford Press.

Decety, J. (2010). The neurodevelopment of empathy in

humans. *Developmental Neuroscience, 32*(4), 257-267. https://doi.org/10.1159/000317771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u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https://doi.org/10.1007/BF00991640

Farrell, A. H., & Vaillancourt, T. (2021). Adolescent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childhood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89*(4), 672-688. https://doi.org/10.1111/jopy.12607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fman, M. L. (2008).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ur.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Vol. 3, pp. 440-455). New York: Guilford Press.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Masten, C. L., Eisenberger, N. I., Pfeifer, J. H., & Dapretto, M. (2010). Witnessing peer rejec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Neural correlates of empathy for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 *Social Neuroscience, 5*(5-6), 496-507. https://doi.org/10.1080/17470919.2010.490673

McDonald, N. M., & Messinger, D. S. (2011). The development of empathy: How, when, and why. In J. J. Sanguineti, A. Acerbi, & J. A. Lombo (Eds.), *Moral behavior and free will: A neurobi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pp. 333-359). Rome: IF-Press.

Miklikowska, M., Tilton-Weaver, L., & Burk, W. J. (2022). With a little help from my empathic friends: The role of peers in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8*(6), 1156-1162. https://doi.org/10.1037/dev0001347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https://doi.org/10.1111/j.1530-0277.2000.tb02070.x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375

Supervía, P. U., Bordás, C. S., Robres, A. Q., Blasco, R. L., & Cosculluela, C. L. (2023). Empathy,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4,* 106755.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2.106755

Van der Graaff, J., Branje, S., De Wied, M., Hawk, S., Van Lier, P., & Meeus, W. (2014).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ic concern in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881-888. https://doi.org/10.1037/a0034325

Van Lissa, C. J., Hawk, S. T., Branje, S. J. T., Koot, H. M., Van Lier, P. A. C., & Meeus, W. H. J. (2015). Divergence between adolescent and parental perceptions of conflict in relationship to adolescent empath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 48-61. https://doi.org/10.1007/s10964-014-0152-5

Wang, J., Yang, Q., Yu, X., & Hu, L. (2024). Effects of adolescent empathy on emotional resilience: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Behavioral Sciences, 14*(3), 228. https://doi.org/10.3390/bs14030228

Xu, X., Liu, Z., Gong, S., & Wu, Y.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ttach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ree-level meta-analy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391. https://doi.org/10.3390/ijerph19031391